

# “우수인재 지역에서 키워야” 아버지 뜻 환원

## 윤동일 금호화학 상무, 상속받은 3억원 전남대 쾌적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수억원의 유산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50대 대기업 임원과 그 가족이 화제다.

윤동일(51)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윤 상무는 3일 오전 어머니 노정순(78) 여사, 여동생 경이(49·광주 중앙중학교 교사)씨와 함께 전남대를 찾아 아버지인 고(故) 윤순오 육군대령 명의로 현금 2억원과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를 김윤수 총장에게 기증했다.

윤 상무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들이 다닌 전남대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셨으며, 인재 육성을 위해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어 하셨다”며 “지난 4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유언 같은 말씀을 지금이라도 이뤄드리자고 마음을 모아 전남대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상무에 따르면 강진농업고등학교 1회 졸업생인 고인은 어릴 적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싶어했으나 한국전쟁이 빨라하



면서 군에 입대, 광생 배움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살았다. 대신 아들(동일)이 1977년 전남대 화학공학과를, 〈故 윤순호 대령〉(경이)이 1979년 사회과학과에 입학하면서 고인은 전남대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으며, 가족들에게 대학 발전기금 기탁에 대한 뜻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상무는 “아버지가 평소 지방의 유능한 인재들이 자주 서울로만 가려고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전남대가 장학제도 등 튼튼한 교육 복지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에서 키워내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이 실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전남대는 고인의 발전기금을 공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에게 ‘무강(武崗) 윤순오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윤수 총장은 “고인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윤동일 금호석유화학 상무(맨 오른쪽)와 가족이 3일 아버지 유산 3억1000만원을 장학금에 써달리며 전남대 김윤수 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에게 전달했다. 〈전남대 제공〉

## 김현중, 광저우 AG 주제가 부른다



가수 김현중이 오는 12일 열리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아시안게임 주제가를 부른다. 소속사 키아이스트는 3일 ‘김현중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김현중은 종화권의 다른 가수 4명과 함께 개막식 무대에 올라주제가 ‘일출동방’(日出東方·Sunshine Again)을 부를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은 현장에 입장하는 관중만 10만 명에 이르며 아시아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중계방송 되는 대규모 행사다.

## ‘이달의 새농민상’ 이정래·신희순 부부



농협 광주지역 본부(본부장 정종순)는 3일 송정농협 이정래(53·신희순(46) 부부가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광산구 도호동에 토마토, 고추, 피망 등 시설체조를 경작하면서 지난 2008년 GAP 인증 획득,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선진 영농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대불대 성아영 교수, 여성 발명 대통령상



대불대는 안경광학과 성아영 교수를 해 ‘대한화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학술진보상 수상에 이어 최근 ‘제8회 여성발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성 교수는 혁신적인 고기능성 ‘안(眼) 의료용 렌즈’를 발명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 렌즈는 시력이 나빠면서 자외선에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적합한 콘택트렌즈 제조 방법에 유용하며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부작용을 많이 감소시키고 콘택트렌즈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年 5000건 해결…한국판 ‘CSI’ 리더

## ‘과학수사 62주년’ 맞는 광주경찰청 김두환 경정

“모든 범죄자는 검거될 수 밖에 없어요. 과학수사대 앞에서 완전범죄는 없습니다.”

4일 경찰의 과학수사 도입 62주년을 맞아 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김두환(51·사진) 경정은 보다 철저한 실험과 연구로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 소탕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45명의 광주 관내 과학수사 요원과 함께 매년 5000여 건이 넘는 과학수사를 이끌고 있다. 그는 7년 전 다른 부서에서 과학수사과에 지원한 이후, ‘한국판 CSI’의 일원으로서 전문 수사관을 11명이나 배출하며 지역 과학수사계의 리더로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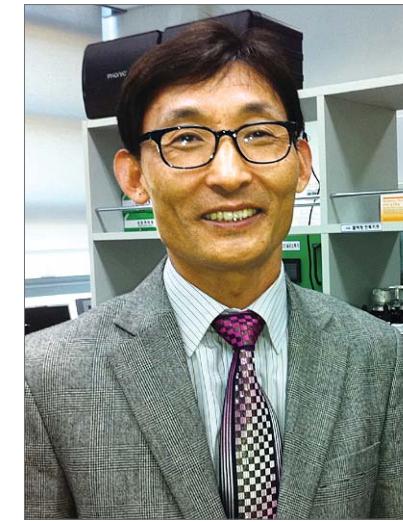
최소 2년의 양성과정을 거쳐야 하는 전문수사관들은 경찰청의 시험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의 업무는 크게 현장감식과 거짓말 검사, 시체검사, 화재감식, 범죄면 그리고 프로파일링이라고 불리는 범죄분석 등 분야가 다양하다.

전문수사관이 포함된 과학수사대는 절도부터 살인까지 모든 범죄에 투입된다. 특히 증거재판주의로 가는 요즘 추세에 이들의 증거 확보는 ‘경찰수사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김 경정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현장에 반드시 있다는 신념으로 과학수사를 진행한다”며 “하루에도 3~4번씩 현장과 사무실을 왕복해야 하는 등 고된 업무 속에서도 85%의 유효증거를 수집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수사대는 또 빠른 판단과 현장감식을 통해 수사 낭비를 줄이고 사건 해결에도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 경정은 “지난해 일어난 사건 중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타살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있었으나 과학수사대의 면밀한 현장감식을 통해 자살로 밝혀져 일찍 수사를 마감할 수 있었다”며 “과학수사대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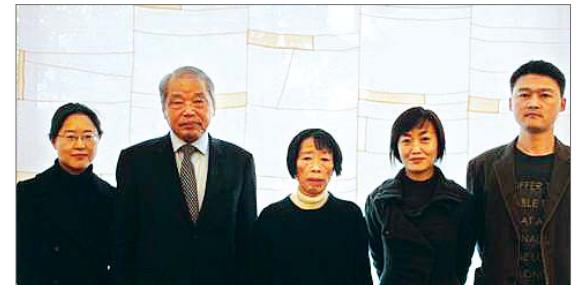


현대 과학수사의 개척자로 불리는 프랑스 에드몽 로카르 박사는 ‘모든 접촉은 서로에게 흔적을 남긴다’는 말을 남겼다. 과학수사의 제1원칙으로 불리는 이 말은 도저히 단서가 없을 것 같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내고자 말겠다는 김경정의 신념과도 일치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최승자·김치수·박형서씨 ‘대산문학상’

시인 최승자(58)씨와 소설가 박형서(38)씨 등이 제1회 대산문학상을 받게 됐다.



대산문학제단(이사장 신창신)은 3일 대산문학상 시 부문에 최승자 시인의 시집 ‘쓸쓸해서 머나먼’, 소설 부문에 박형서 씨의 장편소설 ‘새벽의 나나’, 회곡 부문에 최진아(42) 씨의 ‘1동 28번지, 차수(ナナ)’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론집 부문에는 김치수(70) 씨의 평론집 ‘상처와 치유’, 번역부문에는 이인성 원작 ‘미처버리고 싶은, 미쳐지지 않는’을 공연한 ‘Interdit de folie’의 최애영(49), 장 렘페(79) 씨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쓸쓸해서 머나먼’에 대해 “자기 언어 속으로 스스로를 의문사시키려고 하는 섬뜩함을 보이는 등 오랫동안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고 다시 시적 언어의 빛나는 매력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새벽의 나나’에 대해서는 “작가의 넘치는 재능을 감지할 수 있는 서술과 시선을 사로잡는 뛰어난 표현, 새롭고 자주로운 세계에 대한 거침없는 모색과 체험적 현장성이 높이 평가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상금은 소설 5000만 원, 시와 회곡, 평론, 번역이 각 3000만 원이며 시상식은오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시와 소설 부문 수상작은 번역 지원 공모를 통해 주요 외국어로 번역돼 해외에도 출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광주동부서, 예술의 거리 정화 활동



광주동부경찰서(서장 양성진) 직원들은 3일 국경제고 및 G20 준비를 위한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광주시 동구 대의동 예술의 거리 주변을 청소했다.

## 수자원공, 보성에 ‘사랑의 연탄’ 1만장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은 최근 보성군 북부 4개면 30여 농가에 ‘사랑의 연탄’ 1만장을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sun@kwangju.co.kr

## 내장산공원사무소, 장성 독거노인에 가스렌지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사무소장 석정원(원장)은 최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장성군 북하면 중평마을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13가구에 가스렌지(200만 원 상당)를 각각 전달했다.

〈백암사무소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축

▲정병덕(전 광주일보)·오영자씨  
차남 중학교 재총만·이계덕씨 장녀  
송화양=6일(토) 낮 12시 임동서립  
교회 예배당.

▲최석록(화순 클럽900 사장)·나  
명자씨 장남 재영군 김은희씨 장녀  
이효정=6일(토)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대치1동 성당 2층

▲김재윤(자영업)·임옥자씨 장남  
양근(현대로템)군 송태영(전남대  
시설과)·박숙희씨 장녀 화란(유덕  
초 교사)=6일(토) 오후 1시 라마  
디플라자광주호텔 4층

▲정순례씨 아들 강상일군 김병  
웅(전 문화예술회관·현 광주테크  
노파크 기업지원단장)·김혜영씨 딸  
민정양=6일(토) 오전 11시50분 흘  
리데이인 호텔 3층(구 예별루션)  
▲정재경(이건 건축사 사무소 고

문)·박명자씨 차남 충석군 박정숙  
씨 장녀 윤근이양=6일(토) 오후 1  
시 메리어트 웨딩홀 1층(사파이어  
홀)

▲최수용(광주시의사회 명예회  
장)·류효수씨 차남 창호군 박일양·  
임현숙씨 장녀 지현양=7일(일) 낮  
12시 리마디프라자 수원호텔 3층  
(그랜드 볼룸)

▲조경·김영순씨 장남 현구군 강  
정체(전남대 의대교수·전 전남대  
총장)·김명(광주교대 교수)씨 넷째  
딸 민경양=7일(일) 낮 12시 신양파  
크호텔 웨딩홀.

▲김오빈·박상금씨 장남 정진군  
례회 및 교양강좌(회장 이태교)=9  
일(화) 오후 6시30분 화랑궁회관.  
018-616-5755.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 월  
례회 및 교양강좌(회장 이태교)=9  
일(화) 오후 6시30분 화랑궁회관.  
018-616-5755.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 월  
례회 및 교양강좌(회장 이태교)=9  
일(화) 오후 6시30분 화랑궁회관.  
018-616-5755.

(회장 조동희)=4일(목) 광산구 보  
건소 앞 출발(오전 8시 30분) 옛 백  
제(부여 일원) 및 새만금. 011-628-  
7120.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  
열) 월례회=5일(금) 오후 6시 금강  
산성당. 062-224-0808.

▲유은학원 총동문회(회장 손형  
섭)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12일  
(금) 오후 7시 상록웨딩홀 3층 대연  
회장 062-350-5000.

▲시민기자아카데미 개강 상담  
(나도 기자가 되고 싶다)=20일  
(토) ~28일(일) 유동국민연금 4층  
한국시민기자협회. 062-527-0009.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  
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  
0420(1577-5364).

▲승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  
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  
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  
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

### 알림

010-2613-8076.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062-671-4050.

▲프로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  
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  
적부진, 성적저하, 교우관계, 정서장  
애, 게임중독 등. 010-6392-7137